

## 4. 전통가옥의 특성

### 1) 건물배치

가옥의 배치는 우선 취락이 형성되는 주변 지세나 지형 등의 자연적 환경요인은 물론이고 주거형성과 관련 되는 가족 및 사회체제나 종교관, 세계관 등과 같은 인문사회적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변 지형과 대지조건에 따라 안채나 부속채, 담장, 대문, 마당 등이 가옥배치의 주안점이라 하겠다.

순천지역의 가옥은 대개 부정형의 대지에 대부분 토담을 둘러쌓고 안채를 대지 후방 끝에 두고, 그 정면이나 측면에 사랑채·축사·곳간·측간 등의 부속사를 두었다. 이 건물들과 담장으로 둘러쳐진 안마당은 타작과 저장, 퇴짚기나 채소 밭같이 같은 영농행위가 연장되는 공간이며, 혼례나 상례를 위한 중요한 제례공간이기도 하여 가급적 넓게 쓰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인가가 밀집된 읍내에 위치하는 경우는 안채와 부속사의 후면, 또는 측면 벽체가 그대로 담장이 되어 길에 접하기도 하였다. 소위 서울지방형 민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지 안의 담장과 분리되어 건물이 서지 않고 담장과 외벽체가 일체가 되는 것이다.

안채는 대부분이 남향을 원칙으로 하고 남서, 남동향도 더러 있다. 그외 동, 서, 북향은 거의 없다. 이는 대지의 형상에 적절히 맞추면서도 가장 유리한 일조와 통풍을 위한 방책일 것이다. 그래서 대문도 안마당을 질러 일직선상의 남쪽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외 남서, 남동쪽 모서리나 서, 동쪽에 대문을 내기도 하나 북쪽으로 낸 경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안채를 남향으로 대지 북단에 앉히고 대문을 남단에 댄으로써, 안마당을 통해 모든 가내 동정이나 시설물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한편 부속사는 영농규모가 큰 경우나 상류가옥의 경우는 여러 채로 발달되지만, 영세농가에서는 측간과 같은 것을 제외하면 전혀 없거나 안채에 결합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부속사는 대지 측면 담장에 접한 것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면 담장 또는 대문 좌우에 위치하는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랑채가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대신 사랑채에 있는 사랑방이나 곳간 등의 기능을 안채에 부속, 확장시키려는 서남 해안지역의 집중식 배치의 양상도 엿보인다.

부엌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장독대의 위치는 부엌 바로 앞이 가장 많다. 그외 부엌 옆으로 측면 담장에 면하여 있는 경우도 있고, 마당을 가로질러 전면 담장 쪽에 면한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나 서남 해안지역의 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엌 뒷문으로 통하는 담장 쪽 위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장독대의 위치는 서남 해안지역보다 오히려 남동 해안지역의 민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가옥이 이러한 양 지역적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음이 크게 주목된다.